

일본의 예술 · 독립 ·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제작, 상영 환경의 지원 제도

KOFIC

일본의 예술 · 독립 ·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제작, 상영 환경의 지원 제도

영화진흥위원회 일본 통신원 황균민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11 월 9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문화청 / 1

03

호센문화재단 일본영화 제작·연구 조성 / 2

04

예술문화진흥기금 / 2

05

아트 카운실 도쿄 / 4

06

아시아 센터 / 5

07

CO2 / 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경우, 예술 영화 및 독립 영화, 다양성 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 편수 및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문화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 형성된 지원 시스템이 있으며, 대체로 영화만이 아닌 문화, 예술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 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 아티스트,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체로 전통 문화 계승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로는 미술과 음악 쪽이 가장 많으며 영화에 관련한 지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2. 문화청

문화청은 외국 회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 발표한 2017년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극영화(실사영화), 애니메이션, 특별제작영화(극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각각의 작품은 모두 1시간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 완성해 원칙 상 완성 후 1년 이내에 일반 공개되어야 한다.

극영화, 애니메이션은 조성 대상 경비가 1억 엔 이상인 작품에 대해 조성금의 최고 한도액인 5천만 엔을 지원한다. 특별 제작 영화의 경우, 대상 경비는 3억 엔 이상이며, 지원 최고 한도액은 1억 엔이다. 2016년에는 실사 영화 3편, 애니메이션 1편에 총 2억 엔을 지급했고 선정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실사 영화

- <사자는 오늘 밤 죽는다>, (주)비터즈엔드 제작, 일본·프랑스 합작, 4705만 엔 지원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 (주)하크, 일본·대만 합작, 2,410만 엔 지원
- <Lovers on Borders>, (주)오피스 기타노, 일본·포르투갈 합작, 2002만 엔 지원

애니메이션

- <바다 괴물의 아이>, (주)비온도시이, 일본·말레이시아 합작, 5000만 엔 지원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재단법인 유니재팬의 인정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서 받은 인정서는 문화청 지원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시 접수 받으며 심사는 서류 제출 후 최대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유니재팬(구 재단법인 일본영상국제진흥협회)은 재단법인 일본영화해외보급협회(유니재팬 필름)과 재단법인 도쿄국제영상문화진흥회가 통합해 2005년 출범, 2010년 7월 현 조직의 형태를 갖췄다. 유니재팬은 문화청의 조성 사업 이외에 일본영화의 해외 진출을 도모

하고자 해외 영화제에 참가하는 일본 영화, 일본의 영화제작자에게 외국어 자막 제작, 해외 출국 경비를 지원하고 작품의 관계자 및 해외 세일즈사를 위해 “재팬 부스” 출전을 지원한다.

3. 호센문화재단 일본영화 제작·연구 조성

공인재단법인 호센문화재단은 오사카에 근거지를 두고 일본의 예술 문화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예술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출범한 단체다. 활동 영역은 크게 “일본화 보존과 복원”, “일본영화 제작과 연구”다.

도쿄예술대학, 일본대학, 오사카예술대학, 교토조형예술 대학 등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학생 영화 제작만을 지원하는 조성금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차세대 일본 영화 감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2009년부터 매해 5백만 엔의 조성금을 지원했으며 각 연도별로 적게는 2편, 많게는 4편의 영화 제작을 지원했다.

4. 예술문화진흥기금

1989년 12월 재계 및 예술문화 관계자와 유지들이 모여 문화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경제 분야에서 문화의 역할 및 그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예술문화진흥기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1990년 추진위원회는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예술 문화에 친밀함을 갖고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예술가와 예술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창작 행위와 보급 활동, 문화 진흥을 지원함에 있다.

예술문화진흥기금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541억 엔, 126억 엔을 출자해 총 667억 엔을 자금원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조성 사업은 크게 “예술문화조성기금에 의한 조성 사업”,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에 의한 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예술문화조성기금에 의한 조성 사업은 기금의 운용 이익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1) 예술가 및 예술 단체의 창작, 보급 활동, 2) 지역 문화 진흥 활동, 3) 문화 관련 단체의 진흥, 보급 활동을 지원한다. 이 중 1)번의 사업 내용에 영화제(일본 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예산 지원) 및 상영 지원(특색있는 일본 영화 상영 활동에 예산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제 지원 사업에는 법인자격이 있는 단체,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약, 의사 결정 조직, 회계 조직, 사무소를 갖춘 단체가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영화제를 주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때 영화제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3일 이상 열려야 하며 상영작품에는 일본영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지역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유무도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2016년의 경우, 2회에 걸쳐 33개의 영화제를 선정해 7천 9백 202천만 엔을 지원한다.

상영회 지원의 경우, 영화 상영 혹은 제작을 하는 단체로 역시 법인 자격을 소지하거나 혹

은 정관에 준하는 규약, 의사 결정 조직, 회계 조직,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실적 요건에는 과거에 1년 중 3일 이상 상영회를 주최했거나 재해지에서 상영회를 개최했는가 등이 포함된다. 조성 대상이 되는 상영은 영화관에서의 유료 상영, 상영 작품에 일본 영화 포함, 개최 지역의 지방 공공 단체 지원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조성금을 받은 상영회는 “영화의 천재 하니 스스무 영화제”, “소마이 신지, 그리고 이지치 케이의 영화 상영회-〈쇼와의 가족〉으로 본 현대 가족상”, “사후 30년 기념, 영화 감독 우라야마 키리오의 전모”, “영화 타임머신”, “홋카이도 배우들 영화제”, “시네마의 식당 2012”, “부모와 아이의 명작영화극장” 등이 있다. 2016년에는 2회에 걸쳐 16개의 상영회를 선정해 1천 967천만 엔의 조성금을 교부한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비 보조금에 의한 조성 사업은 문화청의 보조금으로 이뤄지며 여기에는 1)무대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사업과 2)영화제작 지원이 해당된다. 영화 제작의 경우 극영화, 기록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일본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일본 영화라 함은 일본인, 일본 영주권을 소지한 자, 일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작한 작품을 지칭한다. 만약 외국 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했을 경우, 전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요 스태프, 배우, 경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 영화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표1) 조성 대상 및 조성금

활동구분		상영시간	조성 총액	조성금 액수	완성 형식
극영화	A	1시간 이상	1억 엔 이상	2천만 엔	35mm 이상의 포지 필름 혹은 DCP
	B		5천만 엔 이상	1천만 엔	
기록영화	특별	1시간 이상	5천만 엔 이상	1천 5백만 엔	16mm 이상의 포지 필름 혹은 비디오 테이프
	A		2천만 엔 이상	5백만 엔	
	B	20분 이상	6백만 엔 이상	2백만 엔	
애니메이션	장편	1시간 이상	8천만 엔 이상	2천만 엔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한 작품
	단편 A	1시간 미만	1천만 엔 이상	3백만 엔	
	단편 B		3백만 엔 이상	1백만 엔	

영화제작 지원 조성금모집안내(일본예술문화진흥회 홈페이지)

극영화는 영화관 혹은 큰 홀에서 1주일 이상 유료로 상영하는 작품, 기록 영화는 역시 영화관 혹은 큰 홀에서 1주일 이상 유료로 상영하는 작품, 필름·비디오·DVD·블루레이 등으로 유료로 상영하는 작품, B 중 인터넷에서 유료로 공개된 작품을 포함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마찬가지로 영화관 혹은 큰 홀에서 1주일 이상 유료로 상영하는 작품, 단편 A 혹은 B 중 필름·비디오·DVD·블루레이 등으로 유료로 상영하는 작품, B 중 인터넷에서 유료로 공개된 작품을 포함한다.

이 외에 조성금 측은 배리어 프리 자막 및 음성 가이드 제작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표 1의

금액에 실비를 더해 지급한다. 상한은 100만 엔이다.

5. 아트 카운실 도쿄

아트 카운실 도쿄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는데, 같은 해 12월, 도쿄도는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제언을 하는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도쿄예술문화평의회”를 설립한다. 설립 2년 후인 2008 4월에는 도쿄도와 도쿄도 역사문화 재단이 예술문화단체 및 아트NPO 등과 협력해 “도쿄문화발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며 예술 문화 창작을 선도하는 “페스티벌 사업”과 예술 문화를 통한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키즈 사업”을 실시했다. 이듬 해인 2009년에는 도쿄의 다양한 지역을 문화 거점을 만들기 위한 “도쿄 아트 포인트” 계획을, 2011년에는 “세계적인 문화 창조 도시 도쿄”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내외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 4월, 도쿄예술문화 평의회의 제언으로 세계적인 문화 도시 도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아트 카운실 도쿄 준비기구”를 설립, 11월에 지금의 “아트 카운실 도쿄”가 탄생한다.

아트 카운실 도쿄는 조성 제도를 통해 예술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창조 환경을 정비하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 사업, 관광·지역 활성화와 연동해 실험적인 활동을 펼치는 “파일럿 사업”, 조사 연구, 해외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 문화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싱크탱크 기능에 충실한 “기획 전략 사업”도 전개 중이다. 작년에는 기능 강화를 위해 “도쿄문화발신 프로젝트실”과 “아트 카운실 도쿄”가 사업을 재편해 조직을 통합했다.

아트 카운실 도쿄 또한 영화를 포함한 예술, 문화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기 조성 프로그램은 1년간 도쿄에서 이뤄지는 공연, 전시, 아트프로젝트, 영상 등의 창작활동, 국제적 예술교류 활동, 도쿄의 창작 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1, 2차 두번의 모집에 각각 139건, 119건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채택은 각각 62건, 52건이며 영상 관련은 각각 10건, 9건이다.

장기 조성 프로그램은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트, 도쿄를 대표하는 국제적 예술 단체에 대한 발판이 될 활동, 도쿄의 창작 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27개의 개인과 단체가 응모해 이 가운데 8건을 채택 약 570만 엔 규모의 조성금을 지원한다. 영상 부문 해당 선정 건수는 1건이다.

이 외에도 아트 카운실 도쿄는 도쿄 문화 프로젝트 조성 사업을 통해 도쿄 필름엑스를 지원하고, 매해 도쿄사진박물관에서 열리는 에비스영상제는 예술문화창조·발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다.

6. 아시아 센터

아시아 센터는 2014년 4월,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를 도모하는 일본의 전문기관 독립행정법인 국제 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내에 신설된 특별 부서로 아시아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센터는 “아시아 시민교류조성”, “아시아 문화창조협동조성”, “아시아 펠로우쉽”을 통해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 가운데 “아시아 문화창조협동조성”은 예술, 문화, 스포츠 등의 전문가와 기관의 활동 및 사업에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 5개 중 최대 3항목에 대해 1000만 엔을 상한으로 경비를 지원하며,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이동비와 숙박비
- 2) 회장 및 기재 사용비
- 3) 번역비, 통역비, 강연비
- 4) 자료, 보고서 작성비, 광고비
- 5) 화물 운송비

조성비를 지원받은 선정 프로젝트들 중 영화와 관련해서는 상영회나 영화제가 대부분이며, 영상의 경우는 무대와 접목한 복합 예술, 일본과 아시아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교류 프로그램인 ANIME ASEAN 등이 포함됐다.

7. CO2

시네아스트 오가니제이션 오사카(CO2)는 오사카를 영상 문화의 창작, 발신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 하에 영상 제작자 인재 발굴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단체로 2004년에 설립됐다.

응모자의 조건은 감독이 신청할 경우 10분 이상의 단편 작품을 연출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감독 이외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모는 1인 1작품으로 제한한다. 기획안이 채택되면 70-100분 분량의 시나리오 극영화(HD) 작품 및 제작 경비의 결산 보고서를 실행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올해 모집의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제출).

또한 영화의 주요 장면들은 오사카 내에서 촬영해야 하며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정치 혹은 종교단체 등 영화 이외의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는 응모할 수 없다. 조성금은 최대 60만 엔을 지급하고, 이 외에 촬영 기재, CO2 인턴 스태프 및 배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CO2 사무국이 촬영, 제작 협력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료출처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홈페이지 <http://www.ntj.jac.go.jp/>

도쿄아트네비게이션 홈페이지 <https://tokyoartnavi.jp/index.php>

문화청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

아트 카운실 도쿄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tokyo.jp/ja/>

아시아 센터 <http://jfac.jp/culture/>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홈페이지 <http://animationbusiness.info/>

유니 재팬 홈페이지 <https://www.unijapan.org/>

재팬 파운데이션 홈페이지 <http://www.jpff.go.jp/j/index.html>